

1. 뉴스 미디어의 디지털화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

디지털 시대 이전 가장 쉽게 접했던 신문을 혁신화 하고 있다. 웹, 앱을 통한 온라인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를 통한 기사 전달 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도 시청각 뉴스를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화 이전에는 소비자가 보고 싶은 뉴스를 찾아서 봐야했지만, 디지털화로 소비자가 자주 보는 뉴스 주제를 분석하여 뉴스를 추천해준다.

2. 4차산업혁명의 기술이 뉴스 생산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4차 산업 혁명의 기술 중 대표적인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뉴스 생산에 자주 사용 되고 있다. 빅데이터로는 1번 질문에 작성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뉴스를 추천 해주고, 화제가 되는 뉴스가 어떤 주제인지 분석하여 그와 관련된 후속 기사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대신 기사를 써주는 AI 저널리스트 등등 다양한 로봇 저널리즘이 활용되고 있다.

3. 가짜뉴스와 필터버블이 뉴스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올바르지 않은 정보 전달이다. 미디어의 발달로 과도한 정보로 판단이 어려워지며 사실보다 거짓이 많이 전파 된다면 대중들은 거짓을 사실로 믿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나는 가짜뉴스로 인해 뉴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실을 가짜뉴스라고 속여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큰문제라고 생각한다.

대중들은 아무래도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필터버블은 바라보는 시각을 더 좁히게 되고 대중들은 더더욱 편협된 사상을 가지게 된다. 같은 주제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비판과 수용을 해야한다 생각하기에 필터버블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4. 가짜뉴스를 판별하기 위한 뉴스리터리시를 갖추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가짜뉴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장, 거짓 없는 사실만을 전달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뉴스의 참고자료가 분명해야한다 또한 언론사, 기자와 같은 기사의 출처가 믿을만해야한다.

사실을 다룬 뉴스더라도 언론을 조작하기 위해 무분별한 공유, 댓글이 존재하는지 확인 해야한다.